

효과적인 산업규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해외 사례조사

- 이상규 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센터)

1. 출장 개요

- (1) 출장자 : 이상규 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센터)
- (2) 출장기간 : 2012년 7월 10일 (화) ~ 7월 13일 (금) (3박 4일)
- (3) 출장지역 : 홍콩
- (4) 출장목적
 - 규제개선의 외국동향을 조사함에 있어 홍콩은 세계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환경이 양호한 국가 순위 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인 규제 개선 도출을 위해 선진 외국사례로서 조사가 필요 (“규제와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수송산업을 중심으로’ 자체연구과제 관련)
 - 선진국을 중심으로 Smart Regulation을 산업전반에 도입·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홍콩의 경우 규제정책을 Smart Regulation에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음.

- Smart Regulation를 기업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2006년 홍콩정부 내 BFAC(Business Facilitation Advisory Committee)를 설립하여 산업계와 협력하여 규제개선 노력을 경주 중
- 이에 홍콩정부의 정책방향 및 실행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5) 출장일정

일자	방문기관	면담자
7. 10(화)	· 인천 → 홍콩 이동	
7. 11(수)	· BFAC(Business Facilitation Advisory Committee) ·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 Michael Chan · K C Leung
7. 12(목)	· Chinese Manufactures' Association of Hong Kong · 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	· Caroline Ho Wong · Stanley Lau
7. 13(금)	· 홍콩 → 인천 이동	

2. 출장 조사결과

- 홍콩정부의 Smart Regulation 접근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
 - 보안, 건강, 환경 등의 부문에서의 공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함.
 - 국제적인 규제규격에 부합하도록 산업계에 대한 규제시스템을 개선
 - 민간의 이익과 공공 정책의 균형을 도모
 - ※ 준수비용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며, 공공이익과의 상생하는 상황을 유
도하고자 함.
 - Smart Regulation은 98%가 중소기업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혁신정책과도 연계가 필요

○ 홍콩 산업에 대한 규제 시스템 개선 방향 - BFAC 설립 및 추진

: 홍콩 정부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중이며, 홍콩 정부내 BFAC를 두어 Smart Regulation 적용을 확대

(i) BFAC는 Financial Secretary에 정부규제에 대해 공익을 보호하면서 업계의 규제 준수를 촉진하고 기업들에 대한 경쟁적인 규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수단의 개발과 실행에 대해 조언과 보고를 수행

※ BFAC는 전신 Economic & Employment Council(EEC)와 Sub-group on Business Facilitation의 정책을 확대하여 2006년 1년 설립됨.

(ii) 다음 4개의 목표를 갖고 업계에 영향을 주는 정부 규제 및 절차를 검토

① red tape을 척결

②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며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를 제거

③ 규제의 효율성·투명성 그리고 기업 친화성을 제고

④ 업계에 대한 규제 부작용과 준수비용을 감소

(iii) 정부가 업계에 규제 제안에 대해 협의하거나 새로운 혹은 제안된 규제의 실행 이슈를 논의하는 플랫폼을 제공

(iv) 업계의 준수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 검토 혹은 다른 계획들을 추진하는 Task Forces를 설치하고 리더함.

- 이와 관련 Business Consultation e-Platform, Be the Smart Regulator Programme 등을 운영 중

※ Business Consultation e-Platform은 업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제안에 대한 기본 정보, 영향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절차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는 규제제안에 대한 의견이나 관련 다양한 코멘트 제출이 가능

※ Be the Smart Regulator Programme은 정부의 허가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위해 2007년 설립하여 29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허가시스템의 '고객 친밀성(Customer friendliness)', '효율성', '투명성' 등의 향상을 도모

(v) 적절한 업계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관련 분야들을 조사함.

○ 홍콩 산업계의 반응

- 홍콩 산업계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IPR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체감

※ 저소득층 지원, 주거문제, 후생, 최저 임금 등에 대한 정책배려를 통해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산업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

- 홍콩 산업계는 규제가 다양하게 강화되었다고 하나, 홍콩은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 국가 순위 2위에 해당

- 이는 규제의 효과적인 적용과 피규제자와의 feed-back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등 규제시스템 개선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판단

○ 홍콩 산업계의 경영환경 개선 추진 방향

- 홍콩 산업계는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Chinese Manufactures' Association of Hong Kong, 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 등의 민간 기구 및 협회를 통해 정부에 규제개선에 대한 제언과 협력을 제공

- 위의 세 개 민간기관과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는 BFAC의 협력회원으로 활동 중

- 이들 기관들은 규제제안 혹은 새로운 규제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들 규제에 대한 실행상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제공

- 정부의 공익보호 차원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규제실행 비용과의 균형을 유도함에 있어서 규제규제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며, 적절한 규제대안에 대해서도 의견 개진

○ 정책적 시사점

- 스마트규제의 효과는 규제정책 입안자 및 규제자의 의지가 중요하며, 홍콩의 경우 해외 기업의 원활할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스마트규제 도입 의지를 보임.
- 스마트규제의 기본적인 실행의 틀은 민간부문과의 원활한 interaction에서 출발하며, 이는 다양한 규제 제안-평가-입안계획에 반영 등의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규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
-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제안에 대한 기본 정보, 영향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절차에 대해 컨설팅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은 규제제안에 대한 의견이나 관련 다양한 코멘트 제시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
- 홍콩의 경우 스마트규제와 별도로 최저임금, 노동시간, IPR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스마트규제의 효과가 상쇄되는 효과가 있으나, 민간과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스마트규제의 기초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음.
- 스마트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정책 과도 연계가 필요하며, 특히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기업혁신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필요